
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<br>국무조정실<br>국무총리비서실 | <h1>보도자료</h1>           | 2016. 1. 11(월)  |   |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 성<br>·<br>문 의 | 세종시지원단 총괄기획과<br>과장 이용규 / 서기관 김윤경<br>(Tel. 044-200-2609) |
| <b>엠바고</b>  | <b>13시 (행사종료) 이후 사용</b> |                 |   |

## 국무총리, 세종시민과 2016년 새해맞이 떡국 간담회

- 세종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함께 노력 다짐 -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.11일(월)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 가정, 학교 그리고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세종시민들과 떡국을 함께 했다.
  - 이날 떡국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황 총리가 세종시민과의 스킨십을 넓혀나기 위해 직접 제안하여 이루어졌다.
-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“세종시 정주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종시민 모두의 공”이라고 평가하며,
  - “정부에서도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로 자리 잡도록 정주여건 개선, 자족기능 확충, 신·구도심간 균형발전 등에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겠다.”고 밝혔다.
-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이주여성 제날린 사몬테씨(방과후 영어교사, 33세)는 “연초에 총리와 떡국을 먹으니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”며, “총리께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이날 떡국간담회에는 성별, 거주지, 나이, 직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세종시민 13명이 참석하였다.